

새 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사-

로새아 4:6, 베드로후서 3:18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용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바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과 하게 하시고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틀을 입어,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도 다시 감절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로 얻어져서 전 세계 237개국, 땅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64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베드로사도는 ‘너희가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다 포기하고 싶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다 대충하고 싶을 것이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에서 정화하게 가정과 직장생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단들의 특징은 오실 신천지를 바라 보면서 가정, 직장, 공부 다 버리라고 한다. 다미선교회에서는 계속 돈을 모은다. 성도들에게는 끝이 올 테니 필요 없으니 다 버지라고 한다. 그런 이단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 베드로후서는 AD 67년경에 적었다고 본다.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었던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지?’ 하면서 조금만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오셔.’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인데 대충 먹고 살자.’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고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조금해진다. 그러면 조금 참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 연예인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인기가 없고 유명해지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면서 조금해 하지 말라.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말한다.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왜 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으니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없으셔, 너희들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 년 같으니가 당장 내려오지 않으셔.’ 한다.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인데, 어떤 분이 말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는 일 원이 일 억이라고 그래서 한 천년이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일억이 일 원이니가 저에게 일원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리거라.’ 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니(웃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욕도 그렇게 훌륭했지만 계산을 해보면 회복을 30년 동안 기다렸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스게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집안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누님과 조카들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된 건물도 너무 큰 빌딩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기초공사한다고 한다. 기초공사 오래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조금해 하지 말라. 믿고 기도해라. 힘을 얻고 우리가 올인해야 할 일에 올인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금해하지 말고 올인해야 할 것에 올인해라. 또 바꿀 것을 바꾸라는 것이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며 조금한 성격을 가졌다. 어부가 무슨 칼을 썼겠는가. 말고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가 귀를 찢지 않았는가. 이렇게 충동적인 성격이다. 마태복은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걸어나오니까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해서 간다가 빠진다. 또, 겹도 많은 사람이 고 비굴한 사람,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다. 베드로사도를 목상하면 목상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죄송스러웠다. 잘난 척,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모두 나를 버리라.’ 마태복은 26장 33절에 또 나신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참 알비노 사람이다. ‘예배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겠나이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버운 사람이었다. 권위도 없고 무덤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물에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앞뒤로 보면 의미도 모르고 툭 튀어나온 것이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너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속살을 보면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한다.(웃음) 천국 가서 물어보려 한다. 부활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빈 무덤에 가고 그 후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 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의복을 정제하고 만나러 갔다. 그런데 옷을 입고 수영을 해서 갔다. 5분, 10분 기다리면 도착하겠는데. 그것이 이해되었는가. 아무리 반가운 애인, 부모님일지라도 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서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봤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갈 등을 그렸었다. 해 같듯이 있었을가. 베드로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 걸린 자를 고치셨다. 이 분의 눈빛, 모습,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는 안 됐지만 물어봤을 때 튀어나온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나의 현실, 나의 믿음과는 안 맞는 것이다. 그 정도로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믿

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다. 그 심정이 너무나도 갈등됐을 것 같다. 주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베드로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물 속에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질문을 했는가. 안 했다.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 때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하신다. ‘바요나 시몬!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 그 말이 우정적으로 아가페 하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가페를 조건 없는 사랑인데 베드로는 우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다시 두 번째로 물어보신다.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대답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꿔서 물어보신다. ‘내가 나를 필레오 느냐.’ ‘내가 끝까지 필레오 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 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단점이 많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가서 다락방해라. 너는 부족하지만 내 양을 치고 램프를 키워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배 못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나는 다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부족하더라도 너희는 내 양을 먹이고 전도 운동해라.’ 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국 베드로는 고난의 30년 세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틀의 사람으로 변화였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을 믿는다. 오늘 나누게 될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것이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1. 베드로사도가 이 때 올인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 문제가 왔을 때 문제와 고민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때 진정으로 올인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다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야 한다. 어떤 야구선수가 있었다. 야구를 굉장히 잘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쇄살인범이 되었다. 다른 야구선수가 말했다. ‘그 친구는 야구선수를 하면서 연봉을 받으니까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다.’ 몇 십억의 빚을 지고 사업을 망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빚을 다 갚고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생각을 달리한 것이다. ‘내가 흠뻑을 치고 언더를 치려면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 십 만 번 연습하지 않나. 나는 야구선수였지 음식 만드는 것은 처음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수십만 번 요리하고 양념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 것이다. 여러분이 안 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윗처럼 계속 돌 던지를 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돌아가라.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가. 기초부터 하면 된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것에 분산되면 응답이 안 온다. 올인해야 할 것에 올 인해야 한다.

베드로사도는 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성장에 올인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배,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진다.

(2)그러면서 베드로사도는 영적 서밋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인 것에 집중했을 때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다. 베드로후서 1장 5장-7절에 베드로후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는 더욱 힘 써.’ 힘 쓰는 것은 복음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집중이다. 상처입고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위로하고 힘 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힘 써야 할 부분은 ‘너희 믿음의 덕을’ 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끝났다. 그런데 덕은 ‘탁월하다. 뛰어난다.’ 라는 뜻이다. 덕스러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14k도 금이긴 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금이 되는 것이다. 그냥 지식이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는 머리로만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노시스’ 라고 말하는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일본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다. 성격이 너무 특이하시고 사모님도 특이하신데 두 분 성격이 특이하시니까 계속 싸우시는 것이다. 안양동부교회 출신이신데 포럼이 항상 이혼해야겠다는 포럼이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 집회 때 말씀하셨다. ‘목사님, 내가 현장에서 몇 천 번 복음소식을 하니까 이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그 아들도 한국에서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 사이에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카톡 받은 것을 보여줬다. ‘2019년에 중등부 교사가 되었어요. (웃음) 나 같은 것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믿음이 컸겠는가. 그런데 다시 신학교를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치유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 자녀가 언약의 여정을 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머리로, 귀로만 들었던 그 복음이, 그런 구원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밖에 모른다. 절제, Self Control이 되어야 한다. 지식을 발휘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겸손해야 할 때가 있다. 엘리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는다.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책을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책을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진짜 부자를 봤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다.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박사는 자신이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겸정 떠는 아무래도 발차기 하지 않는다. 꼭 과판 꼭, 노란 때가 아무 곳에서나 발차기 한다.(웃음) 내가 6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배웠다. HR시간이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너 태권도 3단이지?’ 하면서 대련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5대 1로 대련을 했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단자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발차기 하지 말라.

아직은 어설피다. 절제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이가 한 살이다. 박사, 대통령이어도 신앙생활하면 한 살이다. 20년 신앙생활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성년자이다.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나이 먹고 인생 살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겸손하게 이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

(3)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말한다. 인내의 경건은 말하고 있다. 경건의 형제, 교우간의 우애를 필데오라고 말한다.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아가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이제 주님을 겨우 아가페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가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너희도 변하라고 순교하기 전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국 신의 성품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거룩한 성품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주님이 제압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생기면 불안하지 않인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세상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내가 올 것인데 너는 지금까지 불안상태로 살았니?’ 하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오실 때 평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빗 많이 쳐도 괜찮다. 천국가면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분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웃음). 농담이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다. 속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들도 롬16장의 인물들처럼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말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이다. 류목사님이 장수하시면 아마 외워야 할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다 외워야한다. (웃음)

2. 베드로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All Out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정욕과 문화에서 All Out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 돈과 쾌락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있다. 그러지 않으면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있다. 왜 그런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궁극한 것이다.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 명주실을 달아야 하고, 부적 붙여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불안해야 할 필요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시간표이다. 그래서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조금씩 되고, 불안양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All out시킬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7(달란트), 7(왕궁어장), 7(지옥)현장과, 5가지(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거듭난 후에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중심, 내 뜻 중심으로 살아가니, 예배를 드릴 수도, 신앙생활 할 수도 없다. 저는 7명의 램넌트 중에서 사무엘을 다시 목장 중에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이상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시대적인 제사장이 되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신앙생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축원한다. 그 속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기회를. 거기서 믿음을 보여줘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재산도 빼앗기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자녀들도 죽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 그러니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도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찌꺼기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 가나안을 거꾸로 잃으면 ‘안가나’이다.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봉사하기도, 헌금하기도 싫고, 세상에서 더 놀고 싶은 것이다. 내 친구도 그렇다. “마음껏 놀 것 다 놀고, 다 늙은 다음에 믿을게.” 한다.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생각이 한 번들이기만 영원한 것을 모르게 된다. 하나님이 쾌락,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천국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지 않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천국가면 여러분이 놓쳤던 것을 천만 배 주신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가.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하지 않은가. 나중에 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영생을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사도 베드로는 All change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 권하고 있다.

성도들 중에서 잘못된 교리에 영향 받은 성도들이 많았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거짓말이야. 오시지도 않아.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하는 것이다. 그 때 당시 종교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 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창녀들이 종교적인 여자였다. 그래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창녀와 같아서 춤을 추고 신접을 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며 여자를 쾌락을 즐기는 종교가 있는데 무슨 천국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혹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이라는 말을 보니 신천지가 생각난다. 신천지는

진짜 정말로 역대급이다. 이제까지 모든 이단들을 다 섭렵해서 연구하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그 몇 마디만 들으면 ‘거짓 이단이니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지 말고 집중해서 이 복음을 듣더라. 던지는 말 속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단회같은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것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안 믿을 텐데, 대부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다른 것하다가, 갑자기 땅이역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교회생활 집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웃음)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복음에 집중해라. 부모님이 ‘너는 부모님이요 아버지야.’하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라고 하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시키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오히려 잘못해도 복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기도해주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부족할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교회 이단에서 그런 것 해봐라. 완전히 산 채로 물어버린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으로 자유롭게 할수록 겸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신천지 가서 마음대로 해봐라. 당장 테러당할 것이다.(웃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었다’고 했다. 모략전도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말이 마귀, 신천지가 하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다가 붙잡혀, 앞뒤 문장을 공부해보니까 다 안 맞는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히 아는 지식을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신천지, JMS, 하남의 교회, 제 7안식일 교회, 이상구 박사는 참 똑똑한 교수인데 천국을 믿지 않는다. 확실한 이단이다. 제가 그 종교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책을 읽어보니 정말 이단이더라. 이상구 박사가 건강관리를 하다 깨닫고 복음이 아닌 것을 알고 제 7 안식일 교회를 나왔다. 우리가 오해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한기총에 속한 개혁신교단으로 들어갔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한기총 밖에 없다. 주류가 우리이다. 통합, 합동측은 비주류. 불법단체인 것이다.(웃음) 오히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다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기다리면 뒤집어진다. 그렇게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았지만, 싸우지 않았다.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바꾸셨다. 이러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구원과 성경에 벗어나는지를 깊이 공부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려야 한다. 그들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하면 된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이단 상담소에서 3~4시간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면 바로 눈물 흘린다. 신천지는 가족들이 반대를 하니 신체보호 각서를 가지고 바로 신고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해야 할 CVDIP에서 대해서 말 씀하고자 한다.

1.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훈련, 다락방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20가지 훈련, 우리는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들까지 살려야 하나.
2. 비전이다. 전 세계에 문을 닫고 있는 서방교회들과 237개 나라를 실행시켰다.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유럽의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을 때부터. 자유주의, 신신학이 들어오면서 무너졌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알려줘야 한다.’
3. 꿈이다. 우리 교단과 한기총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해야겠다. 지금 부모도 나와 있는 교회가 650개가 넘는다고 한다. 헌신예배를 드리러 금빛교회를 갔는데, RTS출신인 목사님이 교회를 임수를 했다고 한다. 한 감사였다. 그 전 교회들, 세 교회가 운영하지 못하고 문 닫았다고 한다. 그 교회들이 다 통합 측이었다. 주변을 보니까 너무 자리가 좋더라. 다 아파트이다. 지금 이 시대는 아파트가 많고 사람들이 많아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다. 그 곳에 개척한 목사님이 인수를 하셔서 그 교회를 살리시고, 1층에 EMS 영어유치원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가 이 꿈을 꾸어야 한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언약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4. 기도이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후대가 살아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차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한다. 선교를 위한 기도조, 후대를 위한 기도조, 산업선교를 위한 기도조,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
5. 그 다음이 실천이다.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중직자와 램넌트들이 모여서 실천을 위한 기획을 해 보기를 바란다. 작은 실천 인턴십도 해봐라. 지난 주에 박현주 장로님이 바누아투에 선교사역을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 좋았다고 한다. 램넌트 출신 장로님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만나 빗물을 식수로 바꾸는 사업을 통해 선교를 하신다. 김형준 집사님 회사의 직원들이 다 바누아투 현장을 갔다. 그것을 통해 바누아투 주변 14개 섬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유승환 집사님이 고생하셔서 다 연결해줬다. 작은 팀이 하나가 되니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영적 특공대를 만들어서 전도, 문화, 대학, 후대현장을 살리는 영적특공대의 응답을 받고 이 말세시대말에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이 시대에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77, 5가지 흑암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결단이 all in. all out.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all change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단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기도제목과 응답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